



천경자 작 <길레언니> 1973년,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천경자 | 또는 슬픔에게
이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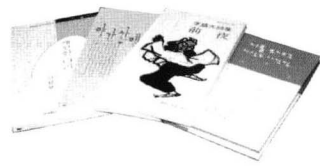
그대의 슬픔에는 그림자가 자란다
슬픔이 테리고 가는 그림자 길이 고달퍼서
차라리 주저앉아 잠들고 싶다
억울하고 무너지고 부숴지고 싶을 것이
어디 그대뿐이라

모든 우리 가는 길 흐느낌이 너무 길어
모든 우리 더 맑은 그리움을 보았듯이
그대 그림자에도 갈수록 뜨거운 피가 도느니
더욱 빛나거라 아프디 아픈 싸움
더더욱 외롭거라 그대 그림자

길레언니에게는 아름다운 꽃매암 한 마리
머리 위에 없어 눈 깊게 불타게 하고
세상의 낮은 생애들
저절로 꽃피워 지를 나뉘거리게 하고
오늘은 햇볕 쏟아져 발가벗고 싶을은 날
먼 발치로 그대 숨은 옷자락 훑쳐보며
나도 몸을 낮추느니
색칠해진 그대의 꿈 그대의 승리
아직 멈추지 않았구나

1999년 <시와 시학> 봄호 수록

시인, 화가의 처연한 슬픔에 헌사 獻辭를 보내다



화가 천경자를 '슬픔'으로 명명하는 이성부 시인의 시 <천경자-또는 슬픔에게>는 화가의 기구한 삶과 그의 슬픔에 바치는 헌사다. 시인이 '천경자'를 '슬픔'과 동격화하는 것처럼 화가의 삶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화가는 짙은 화장으로 자신을 꾸미지만 그의 삶은 외양처럼 화려하지 않다. 첫 남편과의 사별, 두번째 남편과의 이별로 인한 불행한 결혼생활, 사랑했던 여동생의 죽음 등 화가의 삶은 죽음과 이별, 고독의 아픔으로 응어려져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일어난 <미인도> 진위논쟁은 그녀를 오랜 시간 동안 침묵 속에 가둬버렸다. 이처럼 화려함 뒤에 알 수 없는 슬픔의 응어리를 간직하고 있는 인물이 화가 천경자다.

기구한 삶의 주인공 천경자의 그림은 이성부 시 속에 들어와 또 하나의 생명을 얻었다. 이로써 시와 그림은 서로 기대고 소통하면서 '즐거운 동거'를 시작한다.

어린 시절 잠깐 스쳐 지났던 '노란 원피스에 하얀 책 달린 모자'의 여인을 회상하며 화가가 창조해 낸 상상의 인물, 길레언니. 그는 1970년경부터 천경자 화가가 즐겨 그리던 그림 속 모델이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어뜨릴 것 같은 큰 눈망울의 소유자, 길레언니는 시인의 표현처럼 '낮은 생애'를 보낸 인물이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소록도에서 간호사 생활을 했고 오로지 동생들 뒷바라지를 위해 일을 했던 길레언니. 그렇지만 화가는 자기 자신과도 같은 그녀를 '슬픔'과 '고독'에 가두지 않는다. 그는 <길레언니>의 머리 위에 꽃과 뱀을 선사하면서 작품을 통해 '기쁜 상상'을 펼쳐보인다. 꽃 장식은 화려하고 아름답다. 뱀과 나비는 살아 숨쉰다. 아이러니하게도 '슬픈' <길레언니>가 입은 의상은 무채색이 아니다. 그는 노란 원피스에 책 달린 큰 모자의 주인공이다. 화려한 색채와 생명체(뱀, 꽃, 나비) 덕분에 그의 슬픔은 기쁨과 화려함으로 오버랩된다. 그런 점에서 <길레언니>는 '슬픈 현실'과 '기쁜 상상'을 동시에 표현한 작품이다. 이는 합치될 수 없는 대립항들을 한쪽의 그림에 담은 천경자의 작품세계를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그 속에서 우수에 젖은 그녀의 눈은 슬프지만 그녀를 둘러싼 세계는 '햇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도 화가는 흐려진 <길레언니>의 동공을 가리지 않는다. 화려함 뒤에 가려진 알 수 없는 허전함과 슬픔. 그것은 여전히 남아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발견해내지 못한다.

시인은 화려함 뒤에 숨은 '처연한 슬픔'을 읽어낸다. 그는 아름다운 꽃과 뱀에 둘러싸인 채 상상의 세계를 꿈꾸는 화가 천경자와 '길레언니'를 감싸고 위로한다.

이성부 시인은 그들의 꿈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표현한다. 이는 화폭 속에서 행복을 꿈꿔 보려는 화가의 의지일 수도 있고, 진품논쟁에 휘말렸을 당시 화가의 심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꿈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을 바라보는 시인의 눈 속에 있다. 시인은 그를 위로함에 그치지 않고 '몸을 낮추'며 그들에게 적극적인 의지를 심어준다. '색칠해진 꿈 그대의 승리 / 아직 멈추지 않았구나!' 현실 참여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이성부 시인은 화가의 삶과 예술을 통해 '처연한 슬픔'을 간직한 '낮은 생애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준다. 화려해 보이지만 결코 화려하지 않은 처연한 존재, 예술가. 그는 시인의 헌사 獻辭를 통해 위로받는다.

아찔할 만큼 짙은 향기를 내뿜는 꽃송이를 머리 위에 얹은 여인. <길레언니>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보게 되는 것은 그것이다. 그렇지만 <천경자-또는 슬픔에게>를 접한 후 우리는 곧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원색의 화려함 뒤에 숨은 '길레언니'의 한恨과 짙은 화장 뒤에 감춰진 화가 천경자의 '슬픈 그림자'가 바로 그것이다. **주요**

시인이성부는?

1942년 광주 출생. 경희대 국문과 졸업. 1962년 <현대문학>에 <백주>, <열차>가 추천되어 등단. 현대문학상, 한국문학작가상을 받았으며, 오랜 언론계 생활을 마치고 현재 시쓰기에 전념. 시집으로 <이성부 시집>, <우리들의 양식>, <백제행>, <전야>, <빈 산 뒤에 두고>, <아닌 산행> 등이 있다.

화가천경자는?

1924년 전남 고흥 출생. 전남여고를 거쳐 1944년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 졸업. 1946년 광주여고강당에서 첫 개인전을 가진 이후로 수차례의 전시회를 가졌다. 1965년 5월 문예상, 1971년 서울시 문화상, 1975년 3·1문화상, 1979 예술포럼상, 대통령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1999년 한국 예술평론가협회 신정 20세기를 빛낸 한국의 예술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작품으로는 <정>, <생태>, <꽃무리>, <누가 물어>, <물고기>, <노을이 타는 소리> 등이 있다.